

'1004섬' 신안군, 미래 100년 청사진 제시

박우량 군수, 민선 8기 1주년 맞아 주요 성과 보고회 가져 전국 첫 '햇빛 아동수당'·'1섬 1정원'·'1도 1뮤지엄' 등 순조

신안군이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100년을 바라보는 1004섬 신안'을 주제로 정책 방향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전남 박우량 군수는 1004회의실에서 '열린 군정,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군정 주요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100년을 바라보는 1004섬 신안'을 주제로 정책 방향과 군정 주요성과, 향후 주요 추진사업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박 군수는 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한 신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남이 가지 않는 길 ▲문화·예술이 꽃피

는 섬 ▲사계절 꽃 피고 숲이 울창한 섬 ▲다양한 정책을 통한 소득 극대화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 자원의 최대 활용 등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1위, 재정자립도 하위권 등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32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조성 320억원 등 4건, 1천85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신안군은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평가에서 최우수등급(A)에 선정돼 272억원의 기금을 지

원받아 인구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청년이 돌아오는 섬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 '햇빛 아동수당'을 1인 당 연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전력을 쏟고 있다.

미래 100년의 밑거름이 될 1섬 1정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혔다. 총 7천75억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통해 3천822억원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33개소 정원에는 군비 1천685억원을 투입해 읍·면별 대표 수종을 심어 사계절 꽃피는 섬을 완성해 가고 있다.

하나의 섬에 미술관, 박물관을 짓는 1도 1뮤지엄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1004회의실에서 군정 주요성과와 미래 100년의 밑거름이 될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14개 읍면에 야나기 유기노리, 올라퍼 엘리아슨, 안토니 고폴리, 마리오 보타, 박은선 작가 등 세계 유수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세계 유일의 섬 박물관과 미술

관 건립이 한창이다. 신안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52만평의 압해읍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하고, 이 중 9만평을 농공단지로 조성할 목표도 세웠다.

박 군수는 "앞으로 추진사업을 통해 섬 주민들의 획기적 삶의 변화를 가져올 1천615억원이 투입된다"며 "오는 2029년 준공 예정인 장산-지라 연도교에 3천385억원이 투입되고 2030년에는 추포-비금 연륙 도교가 건설돼 주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다이아몬드 제도권 완성을 위한 신의-장산 연도교 건설이 제6차 국도국지도중합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 군수는 "섬 신안이 가지고 있는 햇빛, 바람, 바다는 군민의 희망이 되고, 신안 10GW 신재생에너지는 전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섬 신안의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군민의 삶이 변화하고,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신안 미래 100년을 위해 민선 8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양훈기자



무안군이 낙지 금어기를 맞아 어미 낙지 2만8천여미를 연안에 방류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낙지 생산량 증대 위한 자원 조성

금어기 맞아 어미 낙지 2만8천여미 방류

무안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낙지 생산량 제고를 위해 낙지 자원 조성에 힘쓰고 있다.

무안군은 21일 "낙지 금어기를 맞아 갯벌낙지의 자원 조성을 위해 어미 낙지 약 2만8천800미를 무안군 연안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방류된 낙지가 6-8월 산란해 가을철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지역 낙지 생산량은 남획, 기후 변화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자체 조사 기준 2007년 2만2천(1점 2마리)에서 2017년 1만2천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어업 소득 또한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감소하는 낙지의 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매년 탄도만에 200ha의 낙지 보호수면을 지정해 5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매년 낙지목장 3-4개소를 운영해 2만8천마리의 낙지를 방류했으며, 올해에도 구로어촌계 등 4개소에 8천100마리의 교접 낙지를 방류하고 어촌계에서 직접 보호·관리해 어린 낙지가 부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탄도만에서 낙지산란·서식장을 운영하며, 지난해까지 약 5만6천마리의 낙지를

방류했다. 올해 산란기에도 약 2만마리의 어미 낙지를 방류하고 자원량 변화 등을 감시·관찰해 사업 효과를 분석, 자원 조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군 정책에 발맞춰 어업인들 또한 자율적으로 낙지 자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망운면 송현어촌계는 최근 어미 낙지 약 300미를 조금나루 인근 마을어장에 방류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낙지는 양식이 되지 않고 기온과 수질 오염 등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산란 및 부화율이 낮아 인위적인 자원 조성이 한계가 있다"며 "때문에 어업인 스스로가 남획을 금지하고 금어기 준수, 어린 낙지 방생 등 자율적인 자원 조성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기자

'강진읍 美프로젝트' 영광로 일대 선정

야간 조명·성벽 화단 배치...터미널 인근 간이쉼터 조성

강진군은 21일 "'강진읍 美프로젝트' 시범사업 대상지로 영광로 일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가을까지 기존 목재 화분이 있는 영광로에 야간 조명과 성벽 화단을 배치하고 터미널 인근 조형물을 리모델링 해 간이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조감도>

'강진읍 美프로젝트'는 강진읍 시가지 일대 도시 미관 저해 요소를 개선해 아름답고 쾌적한 강진읍을 만드는 경관 개선 사업이다.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영광로는 강진읍의 중심지로 탐진로, 중앙로 등 주요 도로와 연결돼 도심의 중앙 축 역할을

을 하며 유동 인구가 많다. 특히 강진버스터미널이 자리하고 있어 관광객에게 강진의 첫 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공간이다.

앞으로 영광로 일대는 ▲터미널 입구 옆 기존 조형물 리모델링 ▲메가커피 앞 교통섬 내 간이쉼터 조성 ▲영광로 보도 옆 배치된 기존 화분 교체 후 성벽 화단



설치 ▲택시 승강장 옆 성벽 화단 설치 등 총 4가지 사업이 추진된다. <강진=정영록기자>

최지선 목포의원 '발품 의정활동' 주목

시 예산·어린이집 신규 인가·상생 등 질의

최지선(사진) 목포시의회의원이 '발품 의정활동'을 통한 시정질의를 펼쳐 주목 받았다.

최지선 의원(부흥·신흥·부동동)은 "지난 19일 제3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목포시 예산 관련 질문, 어린이집 상생, 공공시설 개방 관련 청년 지원책 제안에 대해 시정질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은 "목포시 예산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5억원 적자로 원인은 자체 수입 감소 때문"이라며 "오는 10월 개회를 앞둔 양대 체전과 관련해 많은 자금

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체전 준비를 위해 아껴왔던 재정 안정화 기금도 반 이상 사용해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세수 부족 시 막대한 적자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목포시가 추진한 목포 관광공사 설립·목포 전통공예전시관 용역 예산 등 2건의 용역사업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용역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 결과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뒤 집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은 의원들을 무시했거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목포시의 저출산 문제로 어린이집들이 줄폐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한 인가 과정을 통해 주변 어린이집에 대한 상생 방안과 보육 계획을 토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시설 지원, 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지선 시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젊은 엄마 시의원으로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목포, 아이들의 미소가 떠나지 않은 미소를 꿈꾸며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정혜선기자

영광군 "단오, 만사형통!"...법성포단오제

오늘부터 25일까지...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일원

영광군이 매년 음력 단오를 전후로 500년 전통의 영광법성포단오제(사진)를 개최한다.

21일 영광군에 따르면 '2023 영광법성포단오제'가 22~25일 '단오, 만사형통!'을 주제로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일원에서 열린다.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법성포단오제의 시작을 살펴보면 법성포에 조창(漕倉)이 형성된 때부터라 하고 추정할 수 있다.

백제불교가 최초로 전래되면서 불교 문화가 근원이 됐고 법성포에 조창이 형성되면서부터 변성한 것이다.

조창은 백성들에게 거둬들이는 세곡을 모아 보관하고 수송하기 위해 만든 창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법성포에 조창이 세워진 때는 고려 성종 11년(992년)이다.

이후 조선 중종 7년(1512년) 때 영산포창이 폐창하고 법성창으로 옮겨졌으며 당시 법성창은 28개 고을의 조세를

관장하는 개령 이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창이었다.

세곡을 지키기 위한 많은 군사의 주둔과 조운선에 세곡을 운반할 인부 등 많은 사람들이 법성포에 거주하게 되면서 명절 '단오'가 자연스럽게 제전의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법성포단오제가 대중적 행사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 이후다. 느티나무를 심어 방풍림과 휴양지로 활

용해 '숲쟁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주로 단오제가 개최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이 깊은 역사를 가진 법성포단오제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주요 행사 중 하나인 난장뜨기, 용왕제, 선유놀이, 숲쟁이 국악경연대회가 2022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2023 영광법성포단오제는 용왕제·선유놀이·판산제·산신제 등 전통 민속·제전행사를 비롯해 KBS 국악한마당·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법성포단오제 씨름왕 대회·법성포 단오가요제 등과 각종 체험, 축하공연까지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영광=김동규기자



함평군,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박차'

2024년까지 20억 투입...기계화 시스템 구축

함평군은 21일 "군 농업기술센터가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 공모에 선정돼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4년까지 2년간 20억원을 투입, 생산-저장-가공-유통 등 콩 재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립형 융복합 특화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은 국제 곡물가격 급등, 식량 자

급률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콩 재배 전과정 기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계화 작업에 적합한 신품종(대찬·선풍·미풍 등)을 도입해 벼 대체 작목으로 육성한다.

군은 올해 초부터 콩 기본교육을 실시해 농공 우수 생산단지 노하우를 농가와 공유하고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 컨설팅을 의뢰해 농업인 교육

를 추진하고 있다. 또 새로 육성한 기계화 품종을 확대 공급하고 파종 전 후 습해 방지를 위한 분담 관리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기계 수확에 유리한 품종을 확대 공급함과 동시에 대장, 장풍과 같은 신품종 비교포를 조성해 다양한 콩을 보급하고 두부 등 콩을 활용한 가공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콩 재배기술 확립과 농작업 기계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며 "단순 생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콩 가공 상품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기자